

#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행안부로부터 컨설팅

###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실행과제 등 자문 제공 “읍면 마을복지 추진체계 마련에 더욱 힘쓸 것”

곡성군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행안부는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각 기초 지자체의 찾아가

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살펴 보고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제시해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기 위함이다. 15개의 지자체는 미리 신청을 받아 지역 복지 잠재력이 있고 주민 참여 체계가 갖춰진 곳을 위주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지역 중심 보건복지 현장 경험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이 방문해 다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주로 ▲시군구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민관 협력방안 모색, ▲주민 주도의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한 다. 이날 컨설팅은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인 박종철 박사와 SW 복지재단이 맡아 진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발추진단의 배남규 팀장과 전영미 서기관이 직접 참석했다. 곡성군에서는 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곡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복지과장, 곡성읍장, 오산면장을 비롯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단은 곡성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과제 등에 대한 심화된 자문을 제공했다. 특히 민관 협력 방안, 복지 인프라 구축, 마을복지 계획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컨설팅을 맡은 박종철 박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를 넘어 이제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시설 이용, 역량 개발 등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평생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실행



력을 높일 수 방안을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보건복지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마을복지 추진체계 마련에 더욱 힘 쓰겠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에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 봉황 대실마을, ‘톡톡 튀는 벽화 거리’ 조성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마을 개성·주민 일상 녹여내



나주시 봉황면은 대실마을 개성과 주민들의 톡톡 튀는 일상을 담은 벽화 길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벽화 길 조성은 주민 간 협동으로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남도 역점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부터 마을 입구 30m구간에 벽화 토대 설치와 바탕 설치 등 사전 준비에 구슬땀을 흘려온 주민 20여명은 본격적인 벽화 작업을 통해 나주배 재배, 미꾸라

지 잡기, 두부 만들기 등 마을 개성과 주민들의 일상을 익살스럽게 담아낸 벽화 거리를 완성했다. 정중기 대실마을이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일상 속에서 이웃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벽화 그림처럼 활기찬 마을을 가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식 봉황면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봉황면 조성에 함께해준 주민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으뜸마을 조성 사업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강화와 주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화순군,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 추진

### 독립유공자·순직군경·5·18유공자까지 확대...조례 개정 추진



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앞서 군은 화순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고 지역의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에도 나섰다. 군은 전남 지역 최초로 지역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 위한 ‘화순지역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3개 읍·면의 독립운동 전·후 상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 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도 신청할 예정이다. 구례군 화순군수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예의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정립하는 등 ‘의향 화순’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화순군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 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을 골자로 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화순군의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이고, 보훈수당은 월 3만 원이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고 수당을 5만 원

## 구례군, 오는 23일부터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 운영



11월 14일까지 구례5일시장 구례군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구례 감의 집중 출하시기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구례5일시장에서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기간 중 장날인 10월 23·28일, 11월 3·8·13일과 주말에 열린다. 구례 감은 지리산과 섬진강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 착색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시중의 일반 감보다 우수한

품질 자랑한다. 구례의 단감은 600여 농가가 198ha의 면적에서 530여 톤을 생산한다. 작년 직거래장터에서는 90여 농가가 참여해 2억1천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려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번에 일곱 번째로 열리는 구례 감 특별 직거래 장터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5일시장 신규조성 주차장에서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장날과 더불어 주말에도 열린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창출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맛 좋은 구례 감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군, 전 공직자 대상 청렴·부패방지 교육 진행

담양군은 지난 18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하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영상교육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강사를 초빙해 ‘청렴의 슬로모’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행동강령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 어린이 대축제

제21회 곡성어린이축제

2021.10.29. - 31.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곡성어린이대축제